

백현, 그룹·솔로 모두 ‘밀리언 셀러’ 서태지 이후 20년만

엑소 백현이 미니 2집으로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면서 서태지 이후 20년 만에 그룹과 솔로 앨범 모두를 100만장 이상 판매한 가수가 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일 백현이 지난 5월 발매한 ‘딜라이트’ (Delight)가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외에서 총 101만8천746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솔로 음반이 100만장 이상 팔리기는 2001년 발매된 김건모 7집 이후 19년 만이다.

아울러 백현은 그룹과 솔로 앨범을 모두 ‘밀리언 셀러’에 올리는 대기록을 썼다. 그가 속한 보이그룹 엑소는 정규 1집부터 5집까지 음반 다섯 장을 100만 장 이상 판매한 바 있다.

국내 대중음악계에서 그룹과 솔로 앨범을 각각 100만장 이상 팔아치운 사례는 서태지가 유일했다.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하다 1998년 솔로로



▲ 그룹·솔로 모두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엑소 백현.
사진=SM엔터테인먼트

변신한 서태지는 그해 발표한 ‘서태지’와 2000년 내놓은 ‘울트라맨이야’로 음반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했다.

‘딜라이트’는 백현이 ‘시티 라이츠’ (City Lights)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솔로 앨범이다.

한국 대중음악 공인 차트인 가온 차트가 201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솔로 앨범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세계 69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톱 앨범’ 1위에 오르고,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QQ뮤직에서 앨범 판매

액 3백만 위안을 돌파하며 올해 한국 가수 앨범 으론 첫 ‘트리플 플래티넘’을 달성하는 등 해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백현은 2012년 엑소로 데뷔해 팀에서 메인보컬로 활동하고 있다. 각기 다른 SM 소속 그룹 멤버들로 구성된 슈퍼엠에서도 활약 중이다.

‘기생충’ 배우·스태프, 아카데미 신입회원 됐다

지난 2월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미국 아카데미 회원으로 초청받았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지난달 30일, 2020년 신입회원 초청자 819명을 발표했다.

배우 명단에는 ‘기생충’의 주역이었던 최우식, 장혜진, 조여정, 이정은, 박소담이 포함됐고, 의상 감독 최세연, 편집 감독 양진모, 음악감독 정재일, 프로듀서 곽신애, 미술감독 이하준, 음향감독 최태영, 작가 한진원 등 스태프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는 이미 2015년 회원이 됐다.

또 세월호 다큐 ‘부재의 기억’으로 아카데미를 찾았던 이승준 감독, ‘겨울왕국’, ‘모아나’ 등에 참여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 이현민도 포함됐다. 이들이 초청을 수락하면 아카데미 회원으로 아카데미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구성에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5년 임권택·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최민식 등이 처음 아카데미 회원으로 위촉됐다. 이듬해 초청받은 박찬욱, 이창동, 김소영 감독, 배우 이병헌, 애니메이터 김상진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한국인 회원 수는 약 40명이다.

톰 행크스, 마스크 거부 미국민에 일침

톰 행크스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미국민들을 향해 일침을 놓았다.

2일 ‘연합뉴스’가 CNN의 전 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행크스는 영화 ‘그레이하운드’ 홍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미국민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행크스는 또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매우 간단하고 무척 쉽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를 당부하며 “이 세 가지 기본 수칙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크스와 리타 윌슨 부부는 지난 3월 영화 촬영을 위해 호주를 방문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



▲ 톰 행크스와 그의 아내 리타 윌슨.
사진=톰 행크스 인스타그램

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그는 “우리 부부는 주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 격리 생활을 했고, 그 이후로 거리 두기도 실천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 괜찮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TV 드라마 ‘프렌즈’의 스타 제니퍼 애니스턴도 인스타그램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미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애니스턴은 “미국에는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마스크 착용을 권리의 박탈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정치화돼선 안 된다”며 “다른 사람의 목숨에 신경을 쓴다면 제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했다.

숫자퍼즐 정답								
3	2	6	7	4	1	8	9	5
1	5	8	6	2	9	4	3	7
4	7	9	3	8	5	1	2	6
5	3	1	8	7	6	2	4	9
6	9	2	5	3	4	7	8	1
7	8	4	9	1	2	5	6	3
8	6	5	4	9	7	3	1	2
9	1	3	2	5	8	6	7	4
2	4	7	1	6	3	9	5	8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